

“케이블카 사업 즉각 백지화 해라”

통도사 영축환경위,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등반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위원장 도안)는 10월 26일 울산시와 울주군이 공동개발로 추진하는 신불산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반대하는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영축환경위에서 주최한 이날 등반대회는 간월산장에서 집결해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전면백지화 성명을 발표한 후 간월재에 오른 뒤 다시 간월산장으로 내려오는 등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통도사 승려 50여명과 환경단체, 시민, 불자 500여 명이 참가했다.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는 10월 26일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반대하는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사부대중 1천 명 참여
10월 26일 간월재 올라

2016년 착공해 2017년 10월 준공할 계획이다. 영남 알프스 일원인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되자 통도사는 올해 발족한 영축환경위를 중심으로 반대의 입장을 제기해 오다 이번에는 스님과 시민, 불자, 환경단체들까지 합류하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2000년과 2007년 민간 사업자에 의해 추진된 바 있으나 '고산습지보호와 경관훼손', '생태자연도 1등급 절대보전 경관' 등의 이유로

환경부가 반대한 사업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최근 산악관광 활성화를 명분 삼아 이 사업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통도사와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로 사업추진이 난항을 맞고 있다. 영축환경위는 “신불산은 지체제한의 것도 아니고 개발이권과 관련된 몇몇 사람의 것도 아니다. 수차례나 시도됐지만 경제성이 없어 무산되거나 생태계 훼손이 우려돼 반려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지자체의 지역환경 파괴이며, 무분별한 개발행위”라고 강조한 후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유산이 어우러진 영남의 명산 신불산 보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부산 팔관회, 문화재 등록 추진 ‘박차’

10월24~26일 삼광사·범어사에서

부산시 지방무형문화재 등록을 추진 중인 고려 팔관회 재현행사가 10월24~26일까지 부산 천태종 삼광사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개최됐다. 팔관회 재현 본행사는 삼광사(주지 무원)에서 양일간 진행됐다. 10월 24일에는 리허설과 비구니 선방의 일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길 위에서’를 상영했다. 본대회일인 10월 25일은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시작으로 국악행렬재현, 호국기원법회, 대신조하의식, 백희가무 행사가 700여년의 시간을 넘어 진행됐다. 26일에는 장소를 바꾸어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팔관회 수계법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13팔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수불 스님은 대회를 통해 “지난 700년간 단절되었던 팔관회가 관계자들의 치밀한 고증과



팔관회 재현행사가 10월24~26일까지 부산 천태종 삼광사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개최됐다.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최근 원형을 복원하고 재현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고불문을 통해 “팔관회 문화재 등록을 통해 우리 부산이 세계 속에 우뚝한 일류 선진 도시로 도약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수차례의 학술적 고증을 통해 팔관회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전승가치를 확인해 왔다”면서 “국가적 축제였던 고려시대 팔관회가 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동대사, 수륙영산재 및 생전예수재

천태종은 10월 29일~31일 수륙영산재 및 생전예수재를 대구 동대사(주지 김도산 스님)에서 봉행했다.



동대사에서 봉행된 수륙영산재 및 생전예수재

이날 행사에는 전운덕 원로위원장, 변춘광 감사위원장, 주정산 원로위원, 류화산 대구 대성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천태종 범음범패보존회 스님과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사하불연 제1회 불자의 밤 개최

부산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법인)는 10월 28일 감천 약수사 경내에서 지역민 소통과 화합의 자리인 ‘제1회 불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사하불교연합회 회장 법인 스님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

이날 행사에앞서 사하불교연합회는 사하구청에 장학금 5백만원, 사하경찰서에 다문화가정 후원금 5백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야외 기도 공간...환경 청정해야 발심

불자들은 사찰에 오면 산문을 지나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부처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 법당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다스려 사뭇 생각을 없앤 다음에 부처님을 만나야 본인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찰의 기도공간은 그 사찰의 주불을 모신 법당을 비롯해 관음전, 지장전, 삼성각, 칠성각 등 다양하다. 이렇게 건물의 형식을 갖춘 실내 기도공간도 있지만 야외에 부처님을 모신 야외 기도공간도 적지 않다. 특히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큰 암반에 부처님을 새긴 마애불이 있는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특별한 기도공간으로 사랑을 받아왔다. 법당에 모신 불보살도 조성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엄청난 규모의 마

애불을 조성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야외기도공간은 야외에 조성된다는 환경적 특성 때문에 유지관리가 어렵다. 먼지도 많이 앉고, 지금 같은 가을철에는 낙엽도 많이 떨어지게 되며, 겨울에는 눈도 쌓인다. 그러나 야외기도공간은 자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힘이 작용하여 기도력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도공간의 대부분이 자연에 노출된 야외법당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조금 유명하다고 하는 야외기도공간을 기본 사람이라면 너무나 복잡하고, 소란스럽고 정정하지 않은 환경에 놀

라게 된다.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나? 이러한 공간에서 기도를 해서 과연 내가 발원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개를 가우뚱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방식이 너무 지저분하여 앉기가 민망한 경우도 있고, 바닥이 지저분하여 움직이기 쉽지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공양을 올린 촛불과 향이 무질서하고 지나치게 많이 꽂혀있어 자기 것을 꽂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연등을 달기 위해 설치된 철제 가설물이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걸어놓은 연등 때문에 마애불을 볼 수 없는 곳도 있다. 11월 7일은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다. 모든 사찰에서는 아들, 딸 수능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절절한 기도가 절정이다. 특히 영험이 있다는 부처님이 계신 야외기도공간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이어진다. 이러한 야외기도공간이 조금 더 정갈하고, 질서 있고, 정돈이 잘 되어 있다면 기도는 어머니들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할 듯싶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야외기도공간은 청정, 무염해야 신심이 난다. 하지만 대부분이 너무 소란스럽고 지저분하다. 사진은 서울시 흥사당의 야외 기도공간이다.



구인사 가을풍경

청소년과 이주노동자가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이주노동자 20만 시대, 생산 현장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 유적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국민의 시선에도 다소의 편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은 이주노동자들과 청소년이 1박2일 동안 유쾌한 문화 탐방을 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 불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행사참여 안내

- ★일 시 : 2013년 11월 16일(토) ~ 17일(일)
- ★주최주관 :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금강신문사
- ★탐방코스 : 안동하회마을 → 영주 선비촌 - 단양 구인사 - 불교천태중앙박물관 → 도담삼봉 → 서울 관문사 세계음식문화축제
- ★참가자격 : 중 고교생 및 대학생
- ★모집인원 : 선착순 20명
- ★접 수 : 2013년 11월 4일 ~ 8일
- ★문 의 : 대한불교천태종 서울사무소 Tel. 02) 723-1559